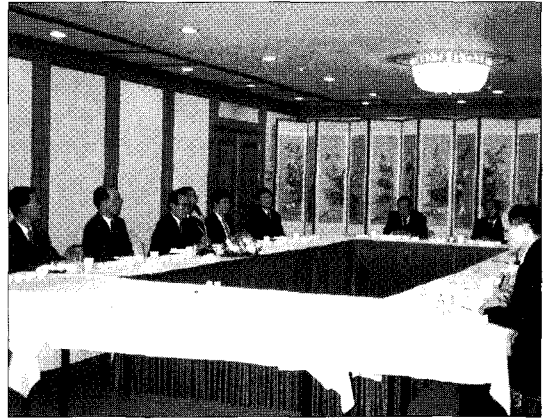


'99년도 제1차 협회이사회 및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협회 임원진과의 간담회 개최

본 협회는 지난 1월 28일(목) 이양순 회장 및 협회 임원이 참석한 가운데 '99년도 제1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1998년도 협회 사업실적과 공정거래제도 교육 및 연수활동의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한 1999년도 협회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동 이사회에 이어 개최된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는 공정위의 조희갑 사무처장, 김병일 정책국장 등 위원회측 인사와 이양순 회장, 현대그룹 박세용 회장, 대한상공회의소 김호성 부회장 등 협회 임원진이 참석하여 새해의 공정거래정책 운용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동 간담회에서는 1999년도에 수행하여야 할 사항으로 대기업 구조조정과 관련 '98.12.7, 5대 기업 집단의 합의사항이 언급되었다. 전윤철 위원장은 대기업 구조조정을 질서있게 마무리하기 위하여 제시된 부실기업의 퇴출, 비주력사업의 정리 및 상호지급보증문제 등 12.7 합의사항의 20개 주요 사항들을 우선 순위에 두고 시행해나갈 것이며, 금년 3~4월에 구조조정이 일단락되면 그 결과에 따라 기업에 대한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하나의 이정표가 되어 대마불사(大馬不死)의 신화도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특히 건설업



분야에서 26개 업체가 담합하여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현실과 관련하여 기업들의 담합행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관련 정부 부처와 협의하고 정부부처의 중복관리체제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전윤철 위원장은 1999년도를 국경없는 경쟁의 범위가 확대되는 21세기로 넘어가는 징검다리의 역할을 하는 해로 보고, 그동안 OECD, WTO에서 논의되어 온 경쟁라운드 내용에 맞게 공정거래법 및 제도가 제역할을 하도록 노력함과 동시에 기업의 분사화, 경쟁과 협력이 새로운 방향에서 재구축되고 새로운 협력방향이 모색될 수 있도록 공정위와 기업이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공정거래제도에 관한 여러분의 원고를 기다립니다.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공정거래제도가 국민 각계각층에 확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단법인 한국공정경쟁협회는 공정거래 전문지인 월간 「공정경쟁」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공정경쟁」지는 공정경쟁 사회의 위상을 새롭게 하고 관계전문가들과 함께 공정거래제도에 관한 문제를 여러분과 토론하고자 합니다. 참신하고 의욕적인 여러분의 글을 다음의 주소로 보내주시시오.

보낼 곳 : (100-743)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4가 45 상의회관 621호
사단법인 한국공정경쟁협회
「공정경쟁」 출판담당자 앞
전 화 : (02)775-8870~2
PC통신 : krcs2000(hitel, 천리안)